

Trip Report

Amsterdam, The Netherlands

With ESEC/FSE'09

Written by Gaeul Jeong

2009. 08. 22 - 2009. 08. 28

이 여행 보고서는 **ESEC/FSE'09** 학회에 참석하는 동안 경험했던 바를 적은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며 느낀 것, 학회에 참석하면서 새롭게 배운점들을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기회를 갖도록 지도해주신 이광근 교수님, 함께 논문을 작성했던 김성훈 교수님과 **Thomas Zimmermann**, 그리고 제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많은 조언해주었던 **Ropas** 멤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ESEC/FSE'09**에 대하여

FSE(Foundations of Software Engineering) 은 SE분야 학회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큰 규모의 학회입니다. 7th ESEC(The joint meeting of the European Software Engineering Conference)와 함께 열렸는데, 저는 학회의 메인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Opening ceremony는 CMU의 Mary Shaw의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SE를 위하여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해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모두 전문가가 아니고, 큰 규모의 시스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학회가 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ESEC/FSE 09 research topics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 학회에서 발표되는 36편의 논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 Composing/integrating systems and services[9]
- Testing/debugging code[7]
- Analyzing/verifying code[6]
- Testing/monitoring composed systems[4]
- Analyzing composed systems[3]
- Developing code[3]
- Predictions about process[2]
- Generalizations[2]

• 기억에 남는 발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것은 Impact Paper Award를 수상한 Zeller의 발표였습니다. 제 논문도 Zeller의 논문을 reference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Zeller의 발표를 추천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본 Zeller를 한마디로 묘사하자면 “스티븐잡스를 보는 듯했다”입니다. Mac OS에서 사용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 Keynote는 화려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장점 중의 장점인데, 그것을 그리 알차게 사용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 본 것 같습니다.(스티븐잡스 다음으로)

Zeller는 “[Debugging Debugging](#)”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 그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Yesterday, my program worked. Today, it does not. Why?”란 논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가 프로그램의 버그를 실행 전에 안전하게 잡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발견된 버그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버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치는 지. 그것을 위해 프로그래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 중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이 keynote 문서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발표 제목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편한한 시간에 읽어보세요.

• 나의 발표

제가 제출했던 논문은 “[Improving of Bug Triage using Bug Tossing Information](#)”으로 Bug tossing 정보를 이용한 Bug fixing process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ROSAEC 워크샵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발표 연습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논문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슬라이드만 완성도 있게 준비한 후,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여 발표 이틀전부터 연습에 몰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막상 강단에 올라가고 나니 크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발표는 연습했던 것보다 말을 빨리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5분 일찍 끝났는데 질문 시간이 그것만큼 길어 전체 시간은 적당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질문과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이 잘 전달 되었을까 걱정했었는데, 질문을 들어보니 다들 잘 알아들었던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또 아래의 의견들을 잘 정리하여 다음 논문의 아이디어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a. *Severity*가 높은 버그들만을 대상으로 실험해보는 것은 어떤가?
- b. 버그를 많이 *fix*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c. 대상을 오픈소스로 삼았는데, 회사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다른 점이 나타나겠는가?

• 공저자들과의 만남

제가 발표한 논문은 총 저자가 3명으로, 홍콩과기대의 김성훈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Thomas Zimmermann과 함께 쓴 것입니다. 김성훈 교수님이 2008년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프로그래밍 연구실에서 Ph.D로 머무르실 때 처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뒤 Zimmermann을 소개받아 5개월 동안 Skype로 미팅을 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논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저자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일 수 있었습니다.

Zimmermann은 Zeller의 제자이기도 했는데,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젊어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모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할 정도로 Zimmermann은 유명인사였고, 조용하면서도 친절한 “툼아저씨”였습니다. 김성훈 교수님이 활발하고 파워풀한 사람이라면, 톼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지요. 이분들과 논문을 쓰게 된 것이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오른쪽과 맨 왼쪽이 김성훈 교수님 내외분,
가운데 왼쪽은 Zeller의 박사과정학생인 Yana,
가운데 오른쪽은 Thomas Zimmermann.

• 네덜란드의 음식

아래 사진은 로비에서 만난 저자들과 함께 간 네덜란드 식당인데, 구글에서 추천할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서 먹은 네덜란드 음식은 생각보다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찐 감자와 콩 볶은 것이 맛있었고, 고기로 만든 스튜가 조금 별로였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네덜란드 음식은 전체적으로 많이 찐 편이고, 네덜란드 고유 음식점보다는 타국의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는 사진은 식당의 내부의 벽장식인데, Delft Blue라는 도자기로 유명한 네덜란드답게 벽장식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벽장식이 집집마다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아래 사진에 나온 팬케이크입니다. 우리돈으로는 약 만오천원 정도인데, 아이스크림과 각종 과일은 없는 빈대떡과 같은 느낌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매우 달아보이는데, 실제로도 엄청 달니다. 제가 단 맛을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저 팬케익을 너무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 Leidseplein부터 중앙역까지...

지금부터는 제가 가보았던 암스테르담 명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곳은 Tram 5호선의 Leidseplein 정류장부터 중앙역까지인데,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처럼 같이 쇼핑몰과 식당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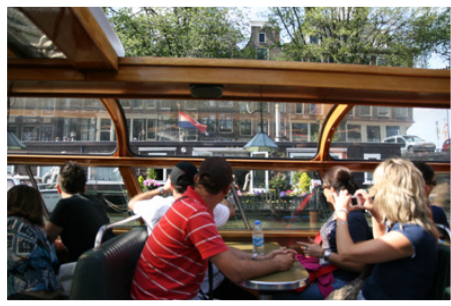
Leidseplein 부터 중앙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꽃시장, 담광장과 궁전을 볼 수 있고 중앙역에 다다르면 운하를 따라 돌아보는 배타기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Leidseplein에서 중앙역 반대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반고흐 박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 Boating

학회측에서 운하를 따라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Free Boating ticket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사용할 시간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녁을 먹고 가니 석양과 함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언스 박물관, 시청, 안네의집, 가장 오래된 건물, 교회 등 굉장히 많은 관광지를 지나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운하 곳곳에 배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배가 많아서 가끔은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여유롭게 저녁을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며 찍은 사진들

- 반 고흐 박물관

들러본 명소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반 고흐 박물관을 얘기할 것입니다.

박물관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엔 반고흐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놓았고, 2층은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해두었습니다.

모든 그림을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반고흐가 불우한 예술가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구구절절한 시대순 설명들을 모두 읽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더 참혹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고흐는 처음 예술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림을 한 점도 그려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일궈낸 것이라 합니다.



왼쪽: 박물관 입구
오른쪽: 박물관 외관

- 댐 광장(Dam square)와 왕궁

댐 광장과 왕궁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는 공연하는 사람과 동상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활기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왕궁은 겉모습이 무척이나 높고 화려했는데, 암스테르담에 오기 전에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왕궁은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는데,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엔 들어가보지 않았습니



• 꽃 시장

네덜란드는 유럽의 화훼 시장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본 곳은 작은 시장 골목이었지만, 화려한 꽃들로 눈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꽃집들 대부분이 튜립씨앗을 팔고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바로 튜립씨앗을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가게에서는 원하면 집까지 국제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장미, 수선화, 연꽃, 수국 그리고 식충식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식충식물입니다. 동그란 통 안에 빠지면 작은 동물들도 죽을 수 있다고 하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 치즈와 나막신

치즈와 나막신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들입니다. 치즈 공장이나 나막신 공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시내를 지나가는 길에 기념품 가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치즈는 주먹만한 어린 치즈 (직원들은 Young cheese라고 부릅니다.) 한덩이에 10유로 정도인데, 공항에서 사는 것과 가격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니 공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치즈는 한국으로 돌아갈 때 꼭 사고 싶은 것이었는데, 시간이 없어 구해놓지 못하다가 공항 게이트 앞에서 운 좋게 구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마치는 글

짧은 기간일지라도 여행을 하기 전의 나와 하고난 후의 나는 다를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번 학회참석은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할 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당시 쓰고 있던 또 다른 논문을 암스테르담에서 돌아온 직후 제출해야 했는데,공저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엇보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남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행 보고서를 마칩니다.

